

고려시대 명기(기생)가 심은 느티나무

✿	장흥-15-12-2-2	✿	전남 장흥군 관산읍
지정번호	장흥-15-12-2-2	지정번호	장흥-15-12-2-2
지정년도	2010	지정년도	2010
관리기관	장흥	관리기관	장흥
수령	700년	수령	700년
수고	18m	수고	18m
흉고둘레	4m	흉고둘레	4m



고인돌이 흩어진 곳에 함께 있는 보호수(장흥-15-12-2-2) 느티나무는 마을의 편평한 들판에 우두커니 자라고 있다. 느티나무의 나이는 700년으로 추정되나 주민들은 800년 이상으로 주장한다. 나무높이는 18m, 가슴높이둘레는 400cm 정도이다. 원줄기는 높이 4m 정도에서 몇 갈래로 갈라진 후 위를 향하고 있다. 다시 갈라진 줄기 가지는 위와 옆으로 퍼져 나무모양을 만들고 있다. 생육상태는 양호하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나무 식재 및 정자 이름과 관련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고려시대 회주의 명기인 명월과 옥경이 심었다. 3그루의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여기정^{여기정}'이라 불렀다. '동국여지승람'에 본 기록이 있으며, '수림총보'에 여기정은 장생 불로목이라 칭하며 풍흉을 점쳐주는 노거목이라 하였다. 그러나 여기정 이름은 1898년 3월경에 천관산 유람을 마친 연재 송병선(1836~1905)이 방촌 마을에 이르러 삼괴정^{三槐亭}으로 개칭하였다. 삼괴정은 3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처음에는 3그루를 심었다고 하지만 현재 고목은 한 그루와 그 앞에 2그루의 어린 나무가 심어져 있다. 느티나무 주변은 현재 그럴듯한 정자가 없으나 청동기시대의 고인돌 5~10기가 놓여 있다. 그중 커다란 고인돌에는 '三槐亭'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곳은 더운 여름철에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고, 선조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득량만 바다와 완도 금당도를 바라보면서 수창등 풍류를 즐겼던 방촌 팔경의 하나로 여기고있다. 그리고 이곳에는 들돌(독)이 있다. 6월 유두(음6/15), 7월 칠석(음7/7), 백중(음7/15) 등 더위에 지친 여름 농사철 그늘진 당산나무 아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정 사내들이 들돌로 힘을 겨루면서 더위를 잊는 여름철 농경문화가 있었다. 이 들돌을 들어 어깨 위로 넘기면 힘센 장사라고 하였다.